

금호타이어 노조 총파업 강행

금호타이어 노조가 채권단이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24일 하루 부분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채권단과 사측의 '자구안' 동의서 제출 요구에 맞서 광주·곡성·평택공장 노조원 3000여명이 '상경 총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작업조를 시작으로 24시간 동안 진행됐다.

서울로 올라간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와 해외 매각 재추진 반대를 위한 집회에 들어갔다.

오후에는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전국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식에 참석해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노조는 "채권단과 사측이 채권 만기 상환 연장 조건으로 2월까지 경영정상화 계획 실행을 위한 노사 약정서 체결"을 요구한 것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채무연장 만을 위한 것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삭감과 생산직 191명 정리하고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안은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자구계획안"이라며 "거둬들이는 경영 실패와 현재 위기가 왜 초래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빠진 자구안은 금호타이어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1조3000억원 규모의 금호타이어 차입금 만기 상환을 경영정상화 계획 실행을 위한 노사 약정서 체결을 조건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당장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또는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F플랜) 등 고강도 구조조정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2009년 워크아웃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이미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은 바 있고, 부실 덩어리 중국공장 처리와 3조9000억원에 달하는 부채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자구안 협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경영 실패 원인 진단과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는 거기에 함께 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산업은행이 회사 경영실사 결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가운데 노조에만 일방적인 자구안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회사 경영정상화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주·곡성·평택 조합원 3000여명 상경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 집회

신뢰를 먼저 보이는 게 우선 순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총파업으로 타이어 생산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곡성·평택공장에서는 연간 2900백 만개의 타이어가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단협 결렬에 반발해 지난 2012년 8월 실시된 총파업 당시에는 1일 평균 70여원의 생산 감소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채권단의 양보로 어렵게 주어진 1개월이라는 귀

중한 시간을 노사가 갈등과 반목으로 허비한다면 금호타이어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미래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집종교섭을 통해 회사를 우선 살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수준과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수초에 달려있는 얼음 대구 아침 최저기온이 12.4도를 보이고 한파경보가 내려진 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일대 수초에 얼음이 녹지 않고 붙어있다.

영하 14.5도 한파에 눈까지...광주·전남 올 들어 가장 추위

광주기상청 "가축의 동사·수도관 동파 등 각별히 유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서해안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2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아침 최저 기온은 영광이 영하 14.5도로 가장 낮았다.

보성(북해) 영하 12.1도, 옥곡 영하 12.0도, 화순 영하 11.9도, 담양 영하 11.8도, 곡성 영하 11.8도, 순천 영하 11.9도, 장성 영하 11.7도, 광주 영하 11.2도 등을 기록했다.

나머지 전남지역도 영하 1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비랍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졌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와 장흥·화순·나주·영광·함평·영암·해남·강진·순천·보성·장성·구례·곡성·담양에는 전날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같은 시각 영광 5.0cm, 무안(해제) 5.0cm, 신안 4.2cm, 무안(무안읍) 3.5cm, 진도 3.3cm, 목포 2.3cm, 함평 1.1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날 새벽 무안·영광·함평·신

안(혹신편 제외)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눈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1~5cm 가량 내리다 그쳐졌지만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도에서 영하 5도의 분포를 보이는 등 당분간 낮 기온도 영하권을 기록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면서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며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러 매우 춥겠다. 가축의 동사, 비닐하우스 작물의 동해, 수도관 동파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아프간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소 인근 자폭 테러

아프가니스탄 동부 남가르히르주(州) 잘랄라바드에 있는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소 인근에서 24일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11명이 다쳤다.

남가르히르 주정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무장괴한들이 잘랄라바드에 있는 세이브더칠드런 지사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살폭탄테러가 먼저 발생 뒤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명의 주정부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총격전이 현재 계속 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병원 대변인은 이 테러로 부상자 11명이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번 테러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무장단체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과 이슬람국가(IS)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美 켄터키주 고교서 15세 학생이 총기 난사

미국 중남부 켄터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2명이 사망했다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7분 켄터키주 남서부 마셜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권총으로 무장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15세 남학생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총격으로 여학생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남학생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또 현재까지 19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14명은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처드 샌더스 켄터키주 경찰청장은 용의자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총격이 시작된 직후 공포에 질린 10여명의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났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치명적인 총격 사건에 미국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이 지역 하원의원인 제임스 코머 공화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분별 없고 사악한 폭력"이라며 "우리 모두를 공포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맷 베빈 켄터키 주지사는 "이번 사건은 엄청난 비극"이라며 "마셜 카운티와 같은 작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美 가스유전 폭발 실종자 5명 유해 발견

오克拉호마주 동부의 천연가스 채굴 시설에서 22일 발생한 폭발 화재로 실종됐던 5명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경찰이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피츠버그 카운티 경찰의 크리스 모리스 보안관은 폭발로 시추탑이 날아가고 화재가 났지만 일단 진화가 된 뒤에는 주 검시관실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시체를 잔해 속을 뒤지며 2시간 이상 조사한 결과 유해들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모리스보안관은 "시신들은 직원들이 흔히 '개 집'(dog house)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듯하다"고 말하고 채굴탑 1층의 작업공간에서 이들을 수습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는 오克拉호마주 출신이 3명, 인근 텍사스주와 콜로라도주에서 온 사람이 각 1명씩이며 주 경찰과 연방수사관들이 폭발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망자 중 3명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페터슨-UTI 에너지 사 소속으로 이 회사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이번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알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털사 시 남동쪽 160km 지점에 있는 쉐던 부근 가스채굴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폭발과 화재로 인해 짙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렸고 채굴시설의 철막이 무너져 땅에 뒹굴었다. 조사요원들은 22일이 지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아서 수색과 조사를 위해 접근할 수 없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16명은 별다른 부상없이 대피했고 1명은 부상으로 헬기 병원을 공수되었다고 비상대책본부는 말했다.

미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는 2014년 14개 주에서 이번과 비슷한 대형 참사 101건이 발생했으며 그 이후로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사고의 대부분은 석유 및 가스 생산이 활발한 텍사스, 오克拉호마주, 노스 다코타주에서 발생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건강기 건강진단
- 영양이 건강검진
- 임 검진
-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42%p 감소	42%p 감소	18%p 감소	18%p 감소

※연말에는 건강검진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건강 챙기세요.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